

본회의 불발 '정국급랭'...예산·법안 진통

한국·바른미래 보이콧 "조국 사퇴·고용세습 국조" 요구 민주 "본회의 불모"...文의장 "국민 보기 부끄럽고 유감"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 실무회담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두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야당무시 일방독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물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날 선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개혁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절반을 넘길 수 있으나 이날은 과반이 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대체로 참석했으나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불발에 여야는 책임을 전가하며 다시 한번 충돌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역지를 부러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 불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야심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

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정부·여당은 물론 한국당·바른미래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버티기로 본회의는 무산됐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에 답답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회·정부, 대기업에 '농어촌상생기금' 독려

정부와 국회는 15일 15개 대기업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조성 상황이 저조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기금 출연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데 이어 자리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연 1천억원씩 10년 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작년 조성됐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난 2년간 505억7천여만원에 그친 데다, 민간기업 출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대기업·공공기관(93.0%)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게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위원장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경대수·정운천 의원, 소속의원 김태홍·김종회·박주현 의원이 자리했으며, 여당 의원은 불참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전자·롯데지주·포스코·GS홀스콤·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KT·두산·한진·CJ제일제당·LS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농어회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도 자리했다.

이 장관은 "이 제도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행되길 희망한다"며 "정부도 세제혜택과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53.8%...7주째 내림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50% 초중반대를 맴돌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53.8%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오른 39.4%,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증가한 6.8%를 기록했다.

국정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 50대와 30대, 정의당 지지층에서 상승했으나, 호남과 대구·경북,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60대 이상, 무당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경제지표 악화 소식과 일부 정당·언론의 경제실패 공세가 거의 일상화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해서 확대됐다"며 "특히 이번 주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 발 가짜뉴스와 북한에 대한 '감골 담배'가 정경거리로 비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6%포인트 내린 40.1%를 기록, 역시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2.1%포인트 오른 22.8%로 3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전주와 같은 8.4%로 횡보했고, 바른미래당은 1.6%포인트 내린 5.7%로, 7주 만에 5%대로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내린 2.3%였다. /연합뉴스

서삼석 "수확기 비축미 공매 농정 불신 가중"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정부 비축미 5만톤 공매 실시 계획을 공고한 이후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은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수확기 정부 비 공매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평균 쌀값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크다고 느낄 수 있지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전례 없이 폭락(20.2-22.9%)했었기 때문에 2013년도 수준으로 겨우 회복된 것"이라고 강조하

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톤 공매에 나선다는 것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매시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정부 비 공매는 수확기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 비 공매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김진수기자

펜스 "北과 좀더 긴밀히 소통해달라"...文대통령 "적극 역할 계속"

아세안 정상회의 열린 싱가포르서 문담 남북, 북미대화·비핵화 선순환 공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커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선택(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환담한 뒤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언급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을 강화해 눈앞에 닥친 북미 간 2차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추동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맞물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백악을 보면 북미 간에도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 속에서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핵화와 북미대화 진전 가속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다.

면담에서는 대북제재나 종전선언에 대



한 언급은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당면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그를 위한 실무 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등의 미세한 내용까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펜스 부

통령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현황을 협의했다"며 "양측은 지금까지 한미 간 확고한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남북관계·비핵화·북미대화 선순환 진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한 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당일신속처리
010-6834-7400

오피스텔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7200만원
-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3605-5000

상가빌딩 50% 급처분

금매 전문

아파트 2,300세대 대로변 상가빌딩 {급처분}

- 훗가20억 급처분11억(보8,000 월600가능)
- 일반상업지 대지445㎡, 건평1,544.83㎡
- ***리모델링90% 공사중
- ==월세용 및 투자용 최적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경매투자

오천경매
010-3605-5000